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8
Aug. 2018
Vol.6 No.8

- 멕시코 단기선교
- ICY 중고등부 수련회
- 창립5주년 감사예배
- 목장 / 사역국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농장으로 향하는 인디오 노동자들, 전도지 한장을 받는 표정도 밝고 순수하다. <사진: 김다솔 기자>

■ 멕시코 단기선교

2018년 주안예교회 여름 단기선교는 80 여명의 지원자들로 구성 되어서 2 개월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와 도내이션으로 철저히 준비된 선교였습니다.

멕시코 Baja California 에 흠어져 살고 있는 인디오 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장로님들의 수차례 답사결과 단기선교의 장소를 그곳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부터 ICY 어린 학생들까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마

음을 합한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선교의 현장을 그리며, 담임목사님의 파송기도를 받은후 각각 대형버스 1대와 교회 밴 5대 그리고 개인차 2 대에 나누어 타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루디 로페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센터 도착 후 첫날부터 새벽 4시에 기상하여서, 빈속으로 농장에 일하러 가려고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컵라면, 뜨거운 커피, 초코파이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은 책자를 전해 주었습니다.

큰 길가에 길목마다 테이블과 가스레인지

설치해서 물을 끓이고, 끓는 물을 부어 라면과 커피를 만들어가며 열심히 외운 스페니쉬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보니 주는사람이나 받는사람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가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감사해하는 그들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료팀은 뚝 떨어진 장소를 마련해서 거의가 농부인 주민들에게 여기저기 통증을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정성어린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열심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4면에 계속> | 이예스터 기자 |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 숨은 일꾼/ 문성훈, 수경 집사(MP)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달려가는 'Yes맨'



문 집사님 내외분의 별명은 '에스맨 부부'입니다. 무슨 일을 부탁해도 항상 OK입니다. 이 부부의 사전에 'NO'는 없습니다. 두

분은 교회의 일을 누군가가 부탁을 해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문성훈 집사님은 성가대에서, 수경 집사님은 교육부에서 각각 봉사를 합니다. 베이스 파트장으로 섬기는 성훈 집사님은 악보 카피를 비롯해서 에어컨 수리, 자리 정돈 등 성가대의 거의 모든 허드렛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물론, 임원들을 보면 자신이 도와줄 일이 없느냐며 무슨 일이든지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안수 집사회에서는 특별히 맡은 직책이 없는데도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성훈 집사님은 봉사국에서의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봉사국으로, 차량국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차량국으로, 주일학교에서 심부름 요청이 들어오면 주일학교로, 브니엘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브니엘로 그냥 달려갑니다.

교육국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수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에 있어서는 부장부수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어린이들을 반기고 지도합니다. 또 아이들의 식사와 간식 준비, 주일학교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준비들을 앞장서서 합니다. 선생님들의 필요에 따라 각종 심부름을 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필수품들도 챙겨주고,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줍니다.

“문성훈 집사님 옆에 있으면 그냥 힘이 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경 집사님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만나면 저절로 신이 나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두 분은 주안예교회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더럽고 묵은 찌꺼기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상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심고 향기를 남기는 분들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로 선한 영향력을 돌보이게 하는 두 분은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 조성운 기자 |



정인섭 집사, 정경화 권사(MP) 정인섭 집사님과 정경화 권사님의 가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부에나팍에 CGV 극장이 있는 Mall 안에서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음식 체인점인 “School Food” (스쿨 푸드)의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혹시 한 국영화를 관람하러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보시길 권해본다.

“성도님들에 맛있는 빵을” 첫 쿠키클래스 수료

교인들의 편리한 교제의 시간과 장소 선택의 번거로움을 돕기 위해서 항상 최고의 간식메뉴로 섬기고 있는 주안예교회 MP “브니엘”에서 첫 번째 쿠키클래스를 오픈해서 4주간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주로 밸리채플에 출석하시는 분들로 구성된 이번 클래스를 통해서 아직은 제빵 봉사자가 없는 밸리채플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MP채플과 동일한 맛의 빵들을 선보이게 될거라 기대해도 좋을듯 싶다.

■ 창립5주년 감사예배

5년간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주안에 가족을 소개합니다!

“말씀에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김방환, 김헬렌 집사(MP)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안에교회에 함께하게 된 김방환, 김헬렌입니다. 먼저 저희를 주안에교회로 이끌어주신 이장로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예배를 주안에교회에서 드

리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첫날부터 최혁목사님께서는 온전히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안에교회는 말씀으로 준비된 그런교회로 다가왔고 숨은 일도 보시는 주님께서 봉사와 노고에 복을 더해주시심을 믿고 실천하시는 형제님 자매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생각하는 주안에교회는 주안에서만나수고하며 함께하고 주안에서 함께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교회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주안에교회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
주안에라이프 가을학기 개강 8월 29일부터 주안에라이프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과목과 함께 초급반, 중급반이 준비되어있고 특히 한지공예가 새롭게 오픈됩니다. 실력있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가을학기를 시작할 예정이니 만학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마다 뜨거운 은혜로 복된 삶”



유두현 집사, 유영애 권사(벨리) 저희는 권사와 안수집사로 오랫동안 이전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충성했지만, 갈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힘들어하며, 의무적이며 형식적으로 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

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혁 목사의 설교말씀을 CD를 통해 듣게하시고, 마침내 주안에교회로 오게 되었고, 매주일마다 뜨겁게 은혜받게 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열심을 다해 그분을 높이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로 하나되어 살아가 움직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안에교회 성도가 되도록 온 마음을 다해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이 살아역사하시는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창립5주년 감사예배

벨리 · MP채플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기쁨의 예배

지난 7월 29일 벨리채플에서는 주안에교회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양쪽채플의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드렸다.

5년전 첫예배를 드렸던 주안에교회는 그동안의 성장에 힘입어 이제는 개척교회의 단계를 벗어나서 영혼사랑을 위한 헌신적인 가슴앓이와 땅끝을 향한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 다져지는 교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최혁 담임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말씀만이 삶의 목표가 되는 교회로 우뚝 서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또 다른 5년 뒤의 주안에교회의 모습을 들뜬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 오희경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예수님 마음 본 받아 작은 섬김...

〈단기선교 · 1면서 계속〉 VBS 반은 아이들을 위한 예배, 풍선놀이, 게임을 가르치고, 미리 준비해간 점프하는 놀이기구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었지요. 그리고 미용팀은 줄이 길게 늘어선채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감기고 컷트를 해주었고, 같은 미용팀 소속인 ICY 젊은 학생들은 손톱을 치장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점심을 거르는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일을 도맡아하는 건축팀들은 우리가 목고 있던 선교관의 망가진 전기시설부터 플라밍까지를 수리하고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번도 자기 학용품 가져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자기 학공품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을 담아 350개의 백팩 가방에 색연필, 연필, 연필깎기, 공책, 티셔츠, 레깅스, 헤어밴드, 양말등을 골고루 담아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쌀과 콩과 강통음식, 잼과 티셔츠, 각종 양말, 스카프, 수건 등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줄때

에는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주민들도 기뻐하며 웃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방팀들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과 필수품들을 가지고 농장으로, 재활원으로 찾아다니던 구제팀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처참한 삶의 현장을 둘러보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방기구들을 들고 선교관에서 교회로, 일 자리를 바꾸어가며 봉사자들의 식사를 챙기면서 구제까지 담당하셨던 주방팀은 유대인인 선교관 주인을 감격시켜서 눈물로 감사를 전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교회에서 파송했던 루디목사님을 향한 주민들의 사랑과 존경심을 읽으면서 머지않아 이땅에 뿌리내리게 될 복음을 상상해 보며, 다음을 기약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했습니다.

한사람의 낙오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 멕시코 단기선교



모래바람 · 흙먼지 속에서도 꽃피는 '하나님 사랑'

■ 의료봉사

첫날-새벽 4시를 시작으로 주안에 선교팀 사역이 시작 되었다 아직 동트지 않은 새벽바람을 맞으며 30분을 달려 사역지인 Colonet 에 도착했다.

아침 식사 후 루디 목사님의 교회에 도착한 선교팀은 일사분란 하게 의료사역 준비를 시작하였다. 의료국은 예배당과는 똑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라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타올을 깔고 타올 베개까지 만들어 놓으니 훌륭한 병원이 되었고 옆 테이블 위에는 각종 약과 비타민을 펼쳐 놓으니 금방 약국이 되었고 문밖에는 종이상자에 “Medico” 라고 써 놓았더니 환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첫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소변기까지 달고 들어서는데 의료선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계속해서 한살짜리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분들까지 각색 병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모두가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돋보기가 없어서

불편한가 하였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지역 특유의 붉은 가루흙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의 각막에 Micro 조각이 되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수술을 여러번 해야 치료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다음에 올 때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투명 보호 안경을 많이 가져 오리라 다짐을 해 보기도 하였다.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한 사람씩 테이블에 눕히고 신발과 양말을 벗겨줄 때, 붉은 흙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둘째날- 역시 4시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1시간을 달려간 곳은 지난번 새벽커피 전도를 했던 Camalu 지역이었다 낮은 열심을 내어 의료 사역을 4시에 모두 끝마치고 우리일행은 캄보(영어로는 Camp) 라는 집단 노동 수용소를 방문 하였다. 덜컹거리는 버스는 큰 길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끝도 없이 들어가 철조망이 쳐지고 철조망 문을 통과하여 일자로 길게 뻗어있는 함석집 앞에 도착하였다. 음식과 선물을 들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Jesus Cristo Te Ama”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

십니다 라고 전하고 기도하며 가지고 간 것들을 전달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현장속으로 들어간 우리는 서로 아무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작은방에는 종이 상자 바닥에 깔려있고 구석엔 불을 뿜을 수 있는 화덕이 부엌을 대신하였으며 옷가지 몇개 걸려 있는 것이 살림살이의 전부였다. 어떤집은 문조차 없어서 낮은 형질 조각으로 현관문을 대신하고 있기도 했다. 그들은 Spanish 도 못하며 그들만의 인디오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도시로 나갈 엄두도 못낸채 하루종일 방울 토마토 를 판 임금 8달러 에서 10달러로 굶다시피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떠난던 날 우리는 잠깐 입었던 티셔츠, 타올, 운동화, 슬리퍼백 등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을 그곳에 남겨 놓은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땅을 떠났다. 우리의 이 짧은 선교 사역의 과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연약한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임용자 기자 |

■ 멕시코 단기선교

신발보다 귀한 선물, 따뜻함이 느껴지는 손길



■ 내가 만난 그 젊은이

3박 4일의 구제와 섬김으로 선교의 첫 시간을 시작 하였습니다. 선교를 보내는 자, 동참 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San vicente, Colonet, Camalu 농사꾼들...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그럭 저럭 매일의 일만 하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젊은이... 세상의 분노감이 찬 눈 빛을 보는 순간 저한테 충격을 던졌습니다. 무서운 눈 빛이었습니다.

Jesus Cristo te ama,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반응은 그저 우리 팀에서 나눠 준 라면과 커피를 먹고 마시며 "그래~알았어" 식 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젊은이에게 "도전"... 순간 하나님 도와 주세요 하고 이름을 물어 봤습니다. LUIZ 라고 하는 그에게 "REPITA COMIGO"(나를 따라해라) JESUS CRISTO ME AMA (예수님은 나를 사랑 하십니다) 안따라했습니다. 또 따라해 보라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 하십니다". 입을 꼭 다물고 열지 못하게 하는 그 배경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REPITA COMIGO. POR FAVOR.. JESUS CRISTO ME AMA...하며 LUIZ 청년이 따라하고 자기 입으로 직접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망에서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제 "아멘"으로 영접하세요.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을 지켜 주시며 역사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안에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지에 PASTOR RUDY LOPEZ 이름과 교회를 적어 알려주고 그 청년에게 매 주 예배를 참석 하길 전했습니다.

다음 코스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며 준비 된지만 선교 가는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순종하는것이 선교임을 실천하려 합니다. 부족하고 무지한 이 영혼을 십자가 밑에 꿰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안교회 여러분과 최혁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잘 인도해 주셔서. | 이혜경 집사 |



척박한 땅에도 동심은 밝게 자라난다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시설,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준다.



■ 멕시코 땅에서 느낀 점

이성권 집사(MP) “해수그리스도 떼아마 무쵸” 예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오직 이 한마디의 스페니쉬를 외워 복음을 전한 후 한국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으며 내 영혼이 기뻐뛰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재인 집사(벨리) 꼭 필요한 건축재료도 부족하여 미국에서 같으면 쓰지 않았을 또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지혜로 잘마칠수있게되어 감사하며 멕시코감보 가정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함께 손붙잡고 기도함이 너무 큰 은혜의 감동이었습니다.

문수경 집사(MP)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함께한 동역자분들의 사역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절제”를 깨닫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외적으로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깊은 자기성찰까지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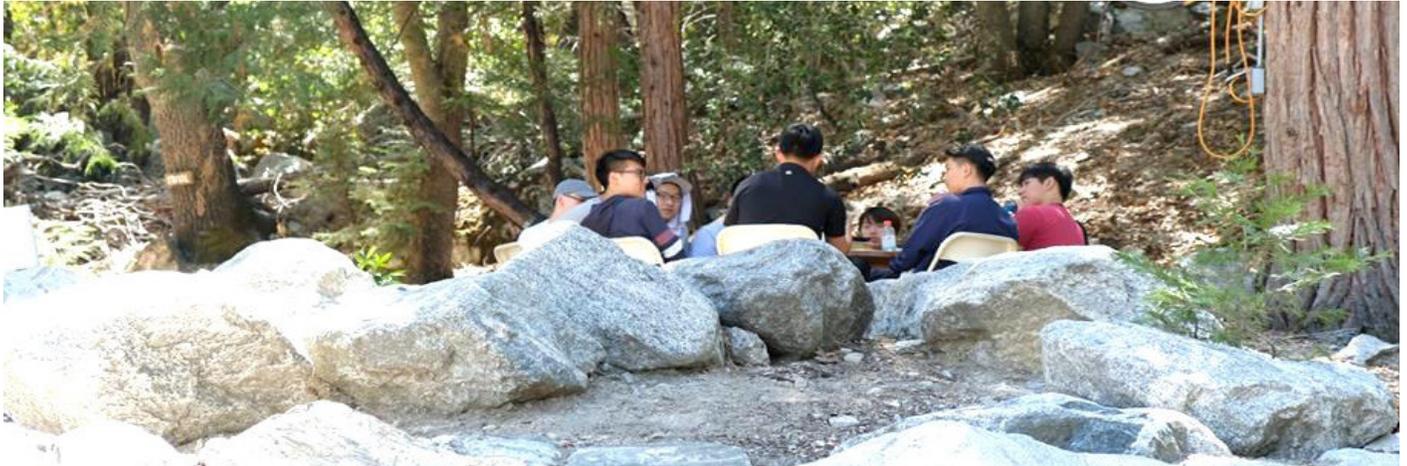
민경숙 집사(MP)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와 얼굴이 한국의 70년대의 모습을 보는것같으면서 함께했던 3일간, 오히려 제가 은혜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금석 집사(벨리) 주안예교회 선교팀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에서 일사분란하게 일하는모습에서 큰 은혜가 되었으며 또한, 제가 가진 탤런트로 머리를 킷트하여 예쁘게 될때마다 큰 기쁨이 되었으며 다음기회에도 섬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혜수 집사(MP) 처음 VBS 시작할 때는 쫓점도없이 멍하게앉아 있던아이들에게 두눈을마주하며 손뽀치고 안아주었던니 마음문을 열고 기뻐뛰며 찬양하고 말쑤를 잘 받아들여서 감사했습니다. 그덕분에 저의 손바닥은 빨갛게 물들면서 저너내내 아팠지요. 그래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슬 집사(벨리) 선교를 떠날 때에 목적은 멋진작품을 사진으로 남기고싶은 욕심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마음을 허락치않으시고 먼저 “사랑과 공홀”을 가진 후 사진을 찍으라는 깨달음을 이번선교기간에 철저히 깨닫게 훈련시켜주셔서 먼저,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선 자신을 돌아본 후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찍은 사진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현란한 기술적인 사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과 공홀이 앞서는 멋진 믿음의 사진이 새롭게 탄생될 것을 기대하며, 한걸음씩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서는 김다슬이 되겠습니다!

■ ICY 수련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 은혜 가득!

지난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 4일 동안 빅베어 지역에 있는 Forest Home 수양관에서 주안예교회 중고등부 학생 87명과 지도자 등 100명이 참가하는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려한 자연환경 가운데 위치한 수련회 장소는 사방이 탁 트인 예배실과 천정을 통하여 채광이 잘 되는 풍고식 텐트 파오를 본 판 숙소 등 여름 수양회 장소로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오

랜 기간동안 전교인들의 기도와 성원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학생들이 2~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사님들의 탁월한 준비와 지도 및 더하여 여러 리더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많은 신앙의 성숙과 성령체험에 대한 기쁨을 이루며 건강하게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참가자들은 매 프로그램마다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열심히 기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휴식 시간엔 넓은 공간에서 음악에 맞춰 마음

껏 몸을 흔들며 기쁨과 젊음을 발산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교육국에서는 수양회를 모두가 건강하게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성원하고 물질로 도와주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수양회 기간과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학부모 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과른길을 따라 두어번 길을 잃은뒤 겨우 찾아간 유스 리트릿장소에 이르렀을 때.. 설마.. 이곳?! 이란 말이 절로 나올정도로 숲속에 덩그란히 놓여진 게르 모양의 숙소가 PSG팀을 맞아주었습니다. 천막 안엔 전등도.. 전기도 없는 텐트 그자체였기에 칠흙같은 숲속 어둠속에서 지내야될 아이들이 걱정됐고, 열음과 음료를 보관할 냉장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없었을 땐 이런 장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에선 자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갈때 쯤.. 작은 컨테이너안에 숨겨진 냉장고를 발견하게 되었고, 어두운 숲길을 밝혀줄 전등도 나무들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있어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최목사님의 설교말씀 하나를 떠올리셨는데.. "우리가 바로 마라에서 불평하며 코앞에 예비

된 엘림을 발견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네요~" 라는 말이 큰 깨달음을 줌과 동시에 서로의 눈빛을 통해 앞으로의 시간을 엘림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지냈시다! 라는 답변이 들려오는듯 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 많은것을 숨겨놓으셨고,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속이었기에 활동하는 공간은 매우 자유로웠고, 어둠속에 숲길은 영성하게 매달린 불빛을 통해 길을 안내받는 낭만을 주었고, 사방이 뿔뿔인 야외에 배당은 시원한 바람과 쏟아지는 별들이 함께해주므로 한밤에 어둠을 뚫고 울려퍼지는 찬양과 기도는 더욱 뜨거울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간식시간 때 간간히 찾아온 곰돌이 가족때문에 어른들은 별별 떨었지만 겁없는 아이들에겐 너무나 신나는 볼거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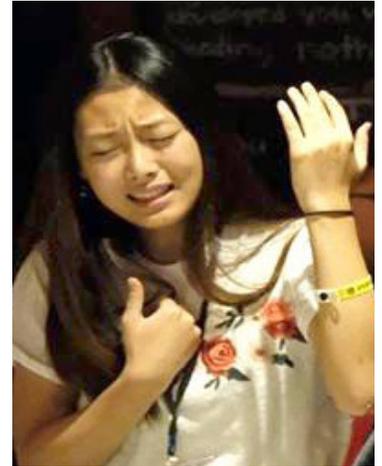
이번 유스 수련회에서는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리더분들의 헌신, 아이들 각자 주님께 드리고픈 간절한 부르짖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음과 몸으로 서포트한 PSG팀, 시시때때로 부족한 물품들을 공수해 주신분들의 헌신, 중보기도팀의 뜨거운 기도등은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있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예비해놓으신 "엘림"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날의 기억과 간절함을 잊지않고, 되새기며 성장할 수있도록 아이들이 힘써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현정 집사 |

■ ICY 수련회



진지하고 갈급하게... 하나님 더 가까이!



끌려서 이쪽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의 일상을 변화시킨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싶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들을 만들어주시고 추억을 만드실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싶다.

거의 예배시간에는 항상 비 오듯이 눈물을 흘렸다. 난 왜 이렇게 죄가 많는지 잘못이 많는지 한국에서도 항상 캠프를 다녔는데, 난 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서 울었다.

이번 캠프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3박 4일이였다.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커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일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전에는 누구 앞에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우는 것도 부끄러워 억

나의 생각을
바꿔준
소중한 3박 4일



양에나(6th Grade)

지로 참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하였다.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난 하나님, 예수님과 소통을 한다. 이젠 부끄럽지 않다. 정말

캠프는 좋았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 영어가 문제였다. 다음 수련회에 올 때에는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들을 것이다.

정말 처음에는 오기 싫었는데 이제는 나의 생각이 변했다. 다음 캠프가 정말 가고 싶다. 다음 캠프때는 내가 그 사이 지은 죄가 있을것이니 그 죄를 기도하고 싶다. 정말 예배 말씀도 좋았다. 우리가 밤에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게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기도할 때가 정말 좋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의 일상이 변한게 정말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좋고 소중한 3박 4일이였다. 다음번 캠프에 오게 되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올 것 같다.

■ 사역국/목장 탐방

"책임감에서 즐거움으로"

주차국(밸리)



주일 아침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은 노란 조끼를 입은 안철 장로님과 이성근 집사님입니다. 마음씨 좋은 교통순경아저씨처럼 검게 그을린 피부로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십니다. 수백대의 자동차들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고없이 가장 편리한 곳에 효과적으로 안내하며 교회 질서를 위해서 새벽부터 임무를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춥고 더운 날씨에 따라 책임감이 무거움을 느꼈으나 주차국을 맡은지 2년을 넘기고 보니 해를 거듭할 수록 무겁던 책임감이 감당할만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고, 더 민첩해지고, 겸손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자라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동차끼리 서로 부딪치는 사건도 있었고, 환자가 생겨서 응급차를 부르기도 하였고, 사고해결을 위해 경찰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해결하고 나면 오늘도 우리를 눈동차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마다 책임주하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되며, 만능해결사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듯한 체험과 보람을 느끼며 더 열심히 구석구석 살피게 된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날에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성전입구에서 돕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생각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며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김신실 기자 |

"서로 챙겨주며 대접하며"



4목장(MP)

MP채플 목장중에 평균 연세가 손 꼽힐 정도로 높은 4목장을 소개합니다. 70대의 연세인데도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화기애애한 나눔으로 매 주 열심히 목장모임으로 모이십니다.

엘에이에 거주하고 계신 4목장 목원들은 아직도 직접 운전을 하시는 몇몇 권사님들께서 매 주 금요일성예배와 주일예배에 라이드가 필요하신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목원들은 싱글 권사님으로써 서로 서로를 살뜰히 챙기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이 훈훈하기만 합니다.

매주 목장모임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나누시면서 더욱 더 든든한 믿음의 분이 되어주시는 4목장입니다.

목자로 섬기고 계신 전정자 권사님께서는 맛쟁이 권사님들의 격려와 도움은 물론 매주 목장모임에는 맛있는 다과까지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안에교회를 위해 기도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4목장 권사님들이 주안에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박경숙 기자 |

■ 알고 계셨나요? / Real ID(2)

연방 정부에서 2020년 10월부터 사용하도록 한 Real ID를 거주에서는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발급하고 있다.

그런데 Real ID는 국내선 비행을 탈 때, 그리고 연방 정부 관할 지역(군대, 연방 청사 건물 등)을 방문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때도 Real ID가 없으면 여권이나 기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그러니 이러한 필요가 없다면 굳이 시간을 들여 일부러 DMV에 가서 면허증(ID)을 교환할 필요는 없고 면허증 갱신할 때 Real ID로 바꾸면 된다.

Real ID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거주 DMV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다. 먼저는 여권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Social Card가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예약>

있어야 한다. Social Card가 없는 경우는 Tax ID 카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DMV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만일 여권의 이름과 Social Card의 이름이 같지 않다면 이를 일치 시켜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가서 이름 정정 신청을 해야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거주 증명서인데 이는 본인 이름과 현 주소가 기재

된 고지서(전기세, 전화세 등)를 가져가면 된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면허증을 갱신할 때 차량국에 가서 일반 면허증 대신 Real ID를 원한다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된다. 만일 Real ID를 원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등으로 Real ID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의 면허증을 신청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Real ID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 차량국의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예약을 하려고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리니 면허증 갱신일에 맞춰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차량국에서는 이런 문제로 많은 지역의 차량국을 토요일에도 9시부터 1시까지 열고 업무를 보는데 토요일은 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붐빈다.

| 조성운 기자 |

■ 주안에살 간증

내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선 주안에 살 3권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 1,2권도 좋았지만 주안에 살 3권은 처음 시작할 때 인도자님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한걸음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열결을 다가오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세례, 성찬, 지역교회의 교인, 교회, 청지기,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6개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개념이나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학습과 나눔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내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연합하여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때 상징물들을 사용하게 하시어 맛보게 함으로써 한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또한 지역 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많은 유익을 누릴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이루며 또한 모든지체가 한 생명을 이루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며 서로 그리스도안에서 존중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 이시고 믿는 자들을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 하는 종으로 살기를 다짐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인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주안에살의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인도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애슬리 집사(MP)

■ 사역일지/ 이승욱 목사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

주안예교회에 온지 이제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8개월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임에 분명하지만, 저에게 있어 8개월은 참으로 긴 시간과 같았습니다.



8개월 동안 마치 처음 사역하는 전도사처럼, 저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 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전까지 청년 사역을 하다 주안예교회에서 시작하는 첫 어른 사역. 첫 어른 심방, 첫 어른 목장 인도, 첫 어른 예배 사회 등. 이 모든 부분들이 저에게 처음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이 부족 하지 않을까, 은혜가 될 되지 않을까, 실수 하지 않을까. 적어도 수 개월 이상은 이런 생각에 토요일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마지막까지라도 피하고 싶었던 이런 환경들이 이제는 사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사역자인 저의 모습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로 세워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아내와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느낀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이유 알 것 같다"입니다.

주안예교회에 오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싶은 열정 주심을 느낍니다.

최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부교역자들과 함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뛰고 달리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 교우시/ 이 조앤나

누가 이 이름을 불렀나 광복절이라고
그 이름 아래에서 굴하지 않는 의지로 독립을 일구어낸 독립투사의 영혼도 깊은 잠 속으로 갈 수 있다
그날의 울부짖음은 해방의 기쁨과 빼앗겼던 억울함이 함께 토해내는 만세 만만세였다
이제 칠십삼년이란 세월을 다듬어 온 백의민족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 허리끈 동여매었던 우리
통통배의 끈질긴 힘으로 조선소에 서는 잠수정을 만들어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의 바다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지 않는가
황량한 대지 위 제철소에서는 붉은 쇳물이 이글거리고
서울과 부산을 달리는 우리가 만든 차량 셀 수 있을까
불굴의 의지와 창조적 역사를 새긴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로 향한다
광복절 이제 고회를 넘기며 새롭게 다듬어진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자손만대 길이 빛날 것이다
이조앤나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I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JINNY NOH PIANO STUDIO

노현순 피아노 개인 지도
(818) 438-9359/ jinnynoh1@gmail.com

Member of MTAC(Music Teacher Association of California) & SYMF(Southern California Youth Music Festival)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공금증 물어보세요(5)

Calfresh

<푸드스탬프/ 잘못된 정보·신청자격>

노재덕 집사
(SSA 근무)



지난 기사에 이어서 Calfresh에 대하여 그 혜택 규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설명을 더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언론에 의하여 발표되는 기사들입니다.

그 내용은 현 대통령의 이민법 강화 조치 결과로 미국에서 Welfare 혜택을 받는 이들은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 될수 있으며 이미 영주권을 받은 자라도 시민권 거부는 물론이고 혹은 시민권 자라도 시민권도 박탈될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기사는 잘못된 정보이며 그런 법의 강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1997년 11월 Welfare에 대한 이민법이 바뀌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영주권자에 대한 자격 변화이며 이도 많은 예외가 적용될 뿐 아니라 특히 현금 보조가 아닌 Calfresh 혜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수 있지만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법이 통과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소급해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그 법 통과이후 case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니 염려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Calfresh 혜택은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으로서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면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었을 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여름에 일어난 수많은 화재로 인하여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특별 unit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Calfresh를 받기 위한 구비 서류나 조건은 매우 단순화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Calfresh를 받기위해 현재 확인하는 유일한 조건은 현재의 가족

총 수입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의 은행 계좌에 수십만원의 현찰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부동산이 수십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Calfresh를 받지 못하는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Calfresh 신청자들의 인터뷰시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은행 계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Calfresh를 받을 수 있는 수입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매달 \$2,665입니다. 이는 세금 공제 이전 수입(gross income)이며 월급명세서(check stub)를 통하여 확인되는 액수를 말합니다. 만일 월급 명세서를 받지 않는 경우 본

인의 수입보고서로 대치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 액수는4인 가족 경우 최고 매달 \$640 입니다. 이 액수는 가족수에 따라, 그리고 수입과 지출 액수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지출이라함은 주로 주택에 대한 지출과 공과금 지출 유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payment이나 credit card payment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online, dpssbenefits.lacounty.gov를 통해 하실수 있으며 혹은 거주하고 계신 dpss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사무실에 직접 가서서 하실수 있습니다. 가실때 준비할 구비 서류는 본인의 ID, 그리고 모든 가족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서류, social security card, 수입 증명 서류와 utility bill 정도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모든 서류가 필요없고 ID 만 지참해서서 신청하시면 당일로 혜택을 드릴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정 보편적인 이 Calfresh 혜택을 많이 이용해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9: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9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예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